

খাম্বা কা
খাম্বা ব
খাম্বা ক্রমিক



썸스페이스 초대, 재미교포 작가 민영순의

‘XEN-이주, 노동과 정체성전展’ 과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책들

“그들도 우리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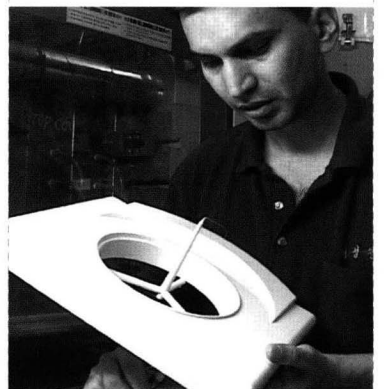
이주노동자에 대한 진부하고 감상적인 성찰을 거부하다

“오토바이로 신문을 돌리는데 비가 왔어요. 비닐로 신문을 덮다가 갑작스레 닥친 트럭과 버스 사이에 몸이 끼었죠. 오른쪽 다리가 트럭 밑으로 들어갔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눈앞이 깜깜했죠. MRI 촬영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갔더니,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찢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신문사는 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물지 않겠다고 하고, 저는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 기숙사에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네팔인 이주노동자 사마 타파 씨의 진술이다. 간신히 몸을 회복한 그는 그 길로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지부’를 찾아가 회원가 입서를 작성했다. 구타와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대책 없는 사고보상 등에 대해 부지런히 발언하고 시위하며, 이주노동자의 존재와 현실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는 뒷전에 놓여 있다. 정부는 ‘한국이주노동자고용법’을 통과시킨 뒤 할 일 다한 듯 방관하고 있지만, 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를 품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 유지’, ‘중소 제조업체 단속대상 제외’, ‘합법적 거주기간 3년 제한’ 등이 그것이다. 법 앞에서 인권유린이 보란 듯 자행되고, 거주기간을 넘긴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은 법의 허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완벽한 법이 정비된다고 해도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다. 우리사회에 박힌 변방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



전시장 2층 '프로젝트 갤러리'에 전시된 '움직이는 목표물'. 명동에서 있었던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지부(ETU-MB)의 고용허가제도 법안의 통과 반대 시위와, 그들 걸을 무심히 걷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한 화면 속에 가로띠로 교차반복시켰다.

쌈지스페이스 초대, 'XEN-이주, 노동과 정체성전展'



외국으로 나가면 꼬리를 바짝 내리는 처지면서, 제3세계 외국인 앞에 선 잘났다고 고개를 쳐드는 건 볼썽사납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대적인 잣대를 대놓고 나면, 우리 역시 변방이란 이름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오랜 해외이주 역사와 세계 4위 해외이주 국가라는 이력을 또 들춰본다면, 그들의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우리의 문제기도 하다.

이주노동자들의 하루가 고달픈 오늘, 한 예술가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재미 한국인 작가 민영순 씨는 최근 '젠XEN-이주, 노동과 정체성전展'을 기획, 전시했다. 예술의 도구로 이주노동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전시의 의미가 남다르다.

민씨는 이번 전시를 위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버마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수십 회가 넘는 비디오 인터뷰를 가졌다. 민씨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까닭은 그 자신이 타국에서 오랜 기간 이방인으로 살아왔고, 그런 만큼 그들의 상처를 공감하기 때문이다. 민씨는 이주, 이산, 정체성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예술적 에너지를 쏟아오기도 했다.

'젠XEN-이주, 노동과 정체성전展'은 이주노동자에 관한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진 4개의 설치작업을 준비했다. 전시장 1층에서 3층까지를 아우른 만큼 스케일도 크고 연출도 다양하다. 전시장 3층 '메인 갤러리'에 마련된 설치작업의 주제는 '현장 작업'. 인터뷰와 미팅을 담은 8개


의 비디오가 전시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비디오 앞에는 저마다 위치를 달리한 의자나 방석이 놓여 있는데, 그곳에 앉아 그들을 보고 있으면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든다. '메인 갤러리' 안쪽에는 다른 주제의 설치작업 '우리에게 이방인'이 준비돼있다. 원형으로 투사되는 영상물의 시적 상징이 유려하다. 남자가 머리로 받든 책들이 떨어지면, 그 책들은 어느새 흐르는 물을 따라 떠다닌다. 책의 목록은 모두 이방인에 관한 것. 흐름이란 것이 변화를 의미하듯, 이방인에 대한 시선도 변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장 2층 '프로젝트 갤러리'에는 '움직이는 목표물'을 주제로 한 비디오 회전영상물 설치작업이 준비돼있다. 명동에서 있었던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지부(ETU-MB)의 고용허가제도 법안의 통과 반대 시위와, 그들 걸을 무심히 걷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한 화면 속에 가로띠로 교차반복시켰다. 영상물은 내내 회전하며 관람자들을 비춘다. 시위는 지나간 옛일이 아니다. 관람자들은 생생한 시위현장 속에 놓인 현재적 의미로 존재한다. 기묘한 체험이다.

전시장 1층 '가라지 갤러리'에 마련된 마지막 설치작업 '3D 출구 : 절망적인Desperate, 일회용Disposable, 추방된Deported'은 이색적이다. 민씨가 직접 쓴 작은 메모 하나가 전시장 저쪽 끝에 붙어 있다. 관람자는 전시장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 LCD 화면으로 메모를 읽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주변자적인 위치를 밝혀본 한편, 그들을 주목하는 매체를 통해 실태가 간신히 알려지는 닫힌 언론을 비판하고 있다. 민씨의 간략한 메모 전문쏘문은

다음과 같다. “사마 타파는 2004년 2월 15일 강제 연행된 후 추방되었다.” 민씨가 기록한 사마 타파는 앞서의 네팔 노동자 사마 타파와 동일 인물이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작가 알란 테수자의 오프닝 퍼포먼스 X가 앞서 펼쳐져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셰이빙 크림을 든 손으로 X자를 거둬 그려 보이며 머리와 몸의 털을 깎는 것이 퍼포먼스의 주요 내용. 알란 테수자의 퍼포먼스는 한 차례로 끝났지만, 그것을 기록한 사진과 영상물은 ‘메인 갤러리’에 함께 전시된다. 알란 테수자 씨는 이번 전시를 기획한 민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모르려 했던 것인가. ‘젠XEN-이주, 노동과 정체성전展’은 불분명한 우리의 작은 모습을 극대화시켜 그것을 마주하게 한다. 비디오 앞에 놓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며, 회전영사물이 몸을 비출 때마다 무관심한 행인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에 얼른 전시장을 빠져나가고도 싶다. 잘 안 보이는 메모의 내용이 궁금해 바투 얼굴을 들이댔더니, 이주노동자의 존재와 현실을 알린 대가로 고국 네팔로 추방된 한 청년의 좌절된 삶이 그곳에 있다. “그들도 우리처럼”이란 진부하고 감상적인 성찰은 없다. 화살 같은 의문은 나를 향해 매정하게 돌아온다. 그들 속에서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그들과 함께 사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전시를 준비한 작가 민씨가 얻고자 했던 ‘정체성에 대한 답’을 함께 공감하는 순간이다. 이주노동자의 비장한 논픽션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혹은 예술이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XEN - 이주, 노동과 정체성전展’을 추천한다.  클 박용두 기자

“오토바이로 신문을 돌리는데 비가 왔어요.

비닐로 신문을 덮다가 갑작스레 닥친 트럭과 버스 사이에 몸이 끼었죠. 오른쪽 다리가 트럭 밑으로 들어갔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눈앞이 캄캄했죠.

MRI 촬영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갔더니,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찢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신문사는 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물지 않겠다고 하고,

저는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

기속사에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

Handwritten text in Nepali script, likely a testimonial or note related to the article's theme of labor and migration.

